

2015년 4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수입 내역>

후원금 입금 현황			
수입총액	28,691,865	전월이월금	190,285
지 로	4,846,630	우리은행	10,710,910
국민은행	6,075,000	하나은행	1,256,170
조흥은행	200,020	신한은행	1,770,240
외환은행	802,500	제일은행	330,100
농 협	1,600,000	기업은행	375,000
우 체 국	65,010	지정기탁	470,000

<지출 현황>

후원금 지출 현황		
항 목	베들레헴어린이집 베다니아의집 벗들의집 마고네공부방	세부내역
인건비	7,650,000	보모(야간)3명, 주방 1명의인건비, 세무사수임료
주·부식비	2,568,050	주·부식비
비품, 시설, 영선비	-	비품, 시설, 영선비
활동비, 교통비	236,100	교통비, 봉사자 활동비 및 잡비
의료비	99,810	약구입, 예방접종, 외래 진료비
소모품비(생필품)	1,302,149	생활용품, 유아용품, 세제, 쓰레기봉투 등
수도광열비	2,270,310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케이블, 전화비
지원금	1,860,000	심리치료, 문화체험등보육지원, 중병 치료 지원금
교육비	-	문구류, 책 등 유아교육자료, 한글반운영비
행사비	343,800	행사, 문화체험비
노동사목위원회	5,500,000	장기수선충당금, 지정기탁(산재, 진폐환우)
후원회관리	2,540,240	소식지, 봉투, 우편비, 후원프로그램관리비
지출 총액	24,370,459	잔액(이월금) 4,321,406

<쉼티 이용 현황>

구 분	이월자	입소자	퇴소자	현재
베들레헴어린이집	31	3	3	31
베다니아의집	6	0	1	5
벗들의집	10	3	2	11
사랑의집	9	2	0	11
마고네공부방	8	0	0	8



일전에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그들의 사고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에도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계열의 색깔들을 표현하는 우리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녹색, 연두색, 청록색, 진녹색, 초록색 등등... 제가 많은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말 가운데는 녹색계열을 표현하는 더 많은 단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수가 많은 만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사물들을 우리 눈은 잘 구분해 낸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잔디밭, 거기에 나 있는 다양한 잡초들, 그 옆에 서 있는 나무의 수많은 이파리들을 한 번에 보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눈에 그 녹색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유럽의 어느 특정 국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 나라에는 녹색계열을 표현하는 단어가 5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큐 제작팀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10개의 녹색 표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서로 다른 녹색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나라의 응답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5개 이내의 숫자를 말하며 서로 다른 녹색이 몇 개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작팀은 이번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을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10개의 녹색표를 보여주며 여기에 몇 개의 녹색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은 우리나라만큼 녹색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도 갖고 있었고, 그만큼 그들은 많은 수의 녹색을 구별해냈습니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며 떠오른 저의 소소한 어떤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성모님을 부르는 필리핀 사람들의 여러 표현들 중 가장 정감 넘치게 들리던 "Mama Mary"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자면 "엄마 마리아" 혹은 "마리아 엄마"가 될 텐데 "Mama"는 아시다시피 주로 어린 아이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들은 "Mother Mary"(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지 "Mama Mary"라고는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모님", "성모 마리아", "성모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만일 누군가 "마리아 엄마, 우리를 위해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불경스럽다고 꾸중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을 친근하게 부른다면, 성모님께서도 우리더러 불경스럽다며 언짢아하실까요?

공식적인 전례나 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에서야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호칭을 사용해야겠지만, 개별적 기도에서는 성모님께 "엄마"라며 더 친근하고 더 가깝게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5월 성모성월만 되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분별없이 또 하나의 신을 모시듯 신심행사를 치르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웬지 성모님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정작 성모님께서서는 친엄마처럼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싶어 하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을 친엄마처럼 좀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만큼 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모셔서 중재기도를 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등부 주일학교 성가 중에 이런 게 기억납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엄마 성모님~ 전구해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편하게 성모님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시메온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5월 후원미사는 18일, 6월 후원미사는 15일, 7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퇴소환자의 감사편지

지난 2012년 3월 소식지에 공지한 에티오피아(남성, 37세, 미혼) 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으로 유학 와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로 전신에 중증화상을 입었던 환자입니다. 얼굴과 머리에 피부재생시술을 3차례나 받았고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로 치료도 끝났고 학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로 구직도 어렵고, 본국에 계신 부모님은 사고소식을 모르고 있어 귀국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픔은 이제 없지만 흉터에 대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편지를 직접 한글로 작성하여 보내와서 첨부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에서 왔던 타데세 입니다. 7년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갈수 있는 꿈을 꾸고 한국으로 왔지만 3년 후에는 제 인생 와 그 꿈을 망가진 큰일 났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8일 불행이 화재 사고 났어 바로 죽은고 나지만 전신 화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전에는 가난한들 애게 도우면서 살고, 그 다음에는 저도 도움 받기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셨던 도움으로 병원비 내고, 여러번에 성형수술은 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지난 4년 동안 매달 생활비 까지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저런 잘 생기지 못해도 지금은 무서운 빨간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고 꿈을 찾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고 월해 석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고맙다면서 잘 살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8일 타데세 올림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다른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부활기념품 만들기



땃발 가꾸기

4. 국민은행계좌 해지 안내

기존 사용 중이던 국민은행 계좌(028002-04-022668)가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금주인 미켈라 산티아고 수녀님(살레시오회, 필리핀)이 베들레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든 계좌로 현재 수녀님의 사목지가 이주사목위원회가 아니므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부득이하게 3월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은 다른 국민은행 계좌(093-01-0297-691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